

고려말 제작 추정 '녹청자' 발견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지에서...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광범위하고 면밀한 전수조사를"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지에서 고려말이나 조선 초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녹청자'가 다수 발견됐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새만금 공항 예정부지인 수라 갯벌에서 생물종 조사를 진행하던 중 2m 깊이로 수로를 파낸 모래더미에서 녹청자 여러 점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도자기편 유물들은 고려 말~조선 초 서남해안(부산 변산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일대에서 제작된 전형적인 민수용 녹청자 그릇편이다.

공동행동은 해무리굽 바닥에 모래와 포개어 구운 내화토비집의 발견, 다양한 생활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새만금 지역의 도자기사 규범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유물이 발견된 장소는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 북쪽 지점으로 남수라 마을과 약 1.1km 떨어진 지점이다. 이곳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의 물을 바다로 빼내기 위해 약 2년 전에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파내며 수로를 만들었던 곳이다.

수질 조사를 위한 지표수를 빼내기 위해 2m 이상 모래를 파내는 과정에서 해저에 묻혀 있던 도자기편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공동행동 측은 전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엔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지에서 발견된 '녹청자'.

발견된 유물은 서해 연안 수로를 통하여 도자기 등을 개성과 서울 등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상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침몰한 조운상선에 실려 있던 유물의 일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 앞바다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해저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

번 유물 발견은 우리나라의 생태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수라 갯벌과 새만금 일대의 유물과 매장문화재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주민 일상의 '활력소'

무진장 생문동 산골음악회 호응
전주시·순창군 팀도 함께 참여
동호회 간 교류의 장 역할도 '특'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포함한 무주·진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지난 25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제9회 무·진·장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산골음악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산골음악회는 장수군·진안군·무주군 3개군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매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펼치는 공연행사로 올해는 장수군에서 개최했다.

음악회에서는 가디락(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한마음노래교실 산골림색소폰, 한빛음악회, 더하모니 플룻앙상블, 셋누리 프리소울, 판타지아밴드 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산골음악회는 장수·진안·무주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포함한 무주·진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지난 25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제9회 무·진·장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산골음악회를 개최했다.

군뿐만 아니라 순창군, 전주시 팀도 함께 참여해 동호회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산골음악회는 인근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가 더해져 더

욱 의미있는 행사가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무·진·장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산골음악회를 꾸준히 진행해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농촌살아보기 체험 예술인 전시회 '눈길'

무주 적상면 치목마을서 주민과 호응
재능기부로 그려낸 영정그림 등 전시



무주군 적상면 치목마을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한 전국 문화예술인이 무주 관내 풍경을 담은 사진과 마을주민들의 영정사진, 그림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문화예술인들은 무주군이 마련한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한 주민 공동체이다. 대부분 국내 미술대학에서 회화와 서양화 등을 전공하고 미술분야에서 작가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인 4팀 8명이 선정돼 4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무주군 적상면 치목마을에 위치한 단풍마을휴(단풍마을로하스빌영농조합법인·대표 임지혜)에 거주해 무주 농촌마을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들 문화예술인들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정그림과 영정사진, 무주풍경사진, 마을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했다. 군이 이들 작가들에게 향후 귀농과 귀촌의 동기부여를 심어줬다는 평가다.

전시회는 무주군 적상면 단풍마을 휴 세미나장에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문화예술인들이 무주군에 거주하면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 어르신 장수사진과 초상화를 비롯해 적상면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무주 풍경사진 전시회가 진행돼 마을 주민들로 부터 관심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김유설 작가(27)는 "허브신들의 영정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긴장하셔서 매우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밝아져 성공적으로 완성분을 마무리했다"라며 "새소리와 물소리 등으로 너무 좋았고 감명이 깊었다"라며 그동안 무주생활의 소감을 전했다.

함께 재능기부에 참여했던 작가들은 "3개월 동안 무주의 생활이 너무 정겨웠다. 후에 인정 많고, 풍경이 좋은 무주에 정착할 의향이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전시회장을 찾은 마을주민들은 "마을주민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사진과 그림, 그리고 무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흐뭇해 했다.

황인홍 군수는 "짧은 기간동안 문화예술인들이 무주군에 거주하면서 마을 주민분들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마을 활력이 배가 되도록 힘을 보태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무주군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귀농 귀촌 정책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국가 생물표본 1만점 분산 관리

1980~2010년대 채집종 인천·전남·경북 등 3곳에... 고유종 다수 포함

국가 생물표본 1만점이 인천, 경북, 전남 등 3개 권역에 분산 수장돼 관리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산하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함께 국가 생물표본을 분산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가 생물표본의 안전한 소장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처다.

생물자원관은 표본의 확보, 서식 지역, 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해 보관 중인 320만여 점의 생물표본 중 9000점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4000점(식물 3000점, 곤충 1000점)은 경북 상주의 낙동강생물자원관, 5000점(식물 2200점, 곤충 및 무척추동물 2000점, 해조류 800점)은 전남 목포의 호남권생물자원관에 각각 수장한다.

영남권 담수 지역에서 주로 확보돼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관리 중인 1000점(동물 500점, 식물 300점, 미세조류 200점)은 인천 서구의 생물자원관에 수장한다.

이번에 분산되는 생물표본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채집된 생물표본이다. 금강조롱꽃, 모데미풀, 가는무늬하루살이, 금강삼점정어리, 제주버들방사 등 한반도 고유종이 다수 포함돼 있다.

2009년에 신종으로 보고된 세일개발나물, 일제강점기 이후 한 번도 서식이 확인되지 않다가 경기도 해안가에서 2005년에 채집된 개장향풀, 2014년 논문에서 기록된 증거표본인 구멍분홍치 등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표본도 있다.

시민환 생물자원관장은 "생물표본이 사회 및 자연과학 기초 분야에서 응용연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과거 시대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에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분산 수장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을 전국 곳곳에 나눠 보관했던 우리 선조들의 현명한 지혜를 이어받아 국가 생물표본의 분산 수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성명서

먼저 이번 사건으로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고인(신천지예수교 도마지파 성도)과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어떤 이유든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사라지기를 신천지예수교회 전성도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묵살되고, 종교인이 정치와 법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인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고 살인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신앙한다는 이유로 여성도가 전 남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신앙 핏방으로 인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의 죽음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이면 살해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이는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강제개종 사업을 벌이는 기성교단 소속 이단상담소 목사들 때문입니다. 또 이들의 입이 되어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허위 비방을 일삼는 CBS(노컷뉴스 포함) 등 일부 기독교언론 때문입니다. 살인은 마귀 행위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처럼 기성교단은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강제개종 목사들은 칼빈처럼 인권유린적 강제개종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죽음에까지 내모는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종교 방송 CBS는 기성교단의 입이 되어 강제개종을 조장하고 있고, CBS의 이러한 허위 왜곡보도는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에 대하여 살인까지 초래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개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 언론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이 살해되었음에도 "천체가 신천지에 빠져 살해됐다"라는 질문을 하고 이를 기사화하는 등 피해자인 망자를 2차 가해하고, 신천지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고 강제개종을 금지하고, 강제개종 행위자를 처벌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종교인의 지배를 받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고귀한 생명의 피로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뜻을 좇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은 최근 그와 같은 귀중한 생명의 피를 헌혈을 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천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살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마귀입니다. 어떤 말도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정을 파탄내고 살인까지 부르는 이단상담소를 폐쇄하고 돈벌이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는 목사들을 처벌하고, 강제개종을 조장하고 2개의 종교인을 만드는 CBS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개종 금지법을 제정하여 강제개종 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목 놓아 호소하오니,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는 꼭 이 애끓는 호소를 들어 주어야 합니다.